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시험발사 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형의 로켓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핵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세계가 보란듯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해 나가고있는 로켓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 106(2017)년 5월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형의 로켓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시험발사를 하루 앞두고 로켓총조립전투현장을 찾으시어 발사준비과정을 직접 지도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수로동계급이 로켓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를 불사르고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롭게 설계착상하고 연구완성한 새형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을 보시면서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현시대의 요구에 맞는 또 하나의 완벽한 무기체계, 《주체탄》이 탄생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발사당일 이른새벽 또다시 로켓시험발사장에 나오시어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시험발사계획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새벽 4시 58분 새형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이 발사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서 일군들과 함께 로켓의 시험발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새로 개발한 지



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결론하자 천지를 뒤흔들며 솟구친 로켓의 동음마냥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발사장을 진감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에워싸고 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어 눈물의 바다를 이룬 이 세상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가슴뜨거운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켓연구부문 일군들을 얼싸그러안아주시며 그동안 수고들 했다고, 정말 큰일을 해냈다고 높이 치하하시며 시험에 참가한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후손만대에 물려줄 고귀한 국보인 《주체탄》에는 령도자는 과학자들을 믿고 과학자들은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일심단결의 사상, 혼연일체의 넋이 높뛰고있으며 죽어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관철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심장으로 웨치며 피어린 결사전을 벌려온 로켓연구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영웅적투쟁사가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시련의 천만고비들을 완강하게 돌파하고 끝끝내 우리 식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을 만들어낸 그들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공화국이 도달한 국방과학기술발전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참으로 중대하고도 특별한 의의를 가지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 누가 인정하든말든 우리 국가는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라고 당당히 선언하시면서 상상할수없이 빠른 속도로 비상히 강화발전된 우리의

핵억제력으로 핵공갈을 일삼는자들을 단호히 다스릴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미국이 그 무슨 압박이니 뭐니 하며 조선반도주변에 핵전략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 우리를 위협공갈하고있지만 핵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골라 군사적으로 통략하는 비겁한 미국식허세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며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하시면서 미국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여 감히 군사적도발을 선택한다면 기꺼이 상대해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것이며 우리도 상응한 보복수단을 쓸수 있는 날이 올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시면서 미국은 그 기회에 조선의 탄도로켓들이 미국에 실제로 위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것을 속시원히 보면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국이 부질없는 경거망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서뿔리 건드린다면 사상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미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안에 들어있다는 현실, 섬멸적보복타격의 온갖 강력한 수단이 우리의 수중에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오만해서도 안된다고 강력히 경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켓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박차를 가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옳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나가며 필요한 시험준비를 더욱 다그쳐나갈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공화국은 최강의 자위적억제력을 가진 동방의 핵강국이다.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고 감히 건드릴수도 없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의 수호자이고 정의의 보루이다.

적대세력의 대조선핵공갈책동에 대처한 조선의 핵능력과 도화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기적인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안아올 전략무기개발을 구상하시고 새로운 무기체계개발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에서 또 하나의 신형전략무기가 탄생하였다.

얼마전 새형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유도 및 안정화체계, 구조체계, 가압체계, 검열 및 발사체계의 모든 기술적특성들이 확보되고 새형의 로켓발동기의 믿음성이 실제적인 비행환경조건에서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재돌입환경속에서 조종전투부의 말기유도특성과 핵탄두폭발체계의 동작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이날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시험발사를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상대지상중장

핵강국의 위력을 과시한 캐승

거리전략로켓 《화성-12》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참으로 중대하고도 특별한 의의를 가지며 그 무엇보다도 비길수 없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누가 인정하든말든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라고 하면서 비상히 강화발전된 우리의 핵억제력으로 핵공갈을 일삼는자들을 단호히 다스릴것이라고 하시며 미국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여 감히 군사적도발을 선택한다면 기꺼이 상대해줄 준비가 되어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언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공화국은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다.

기나긴 세월 적대세력의 핵위협을 받고있는 공화국은 자기 힘으로 핵재앙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온갖 전략자산들을 다 동원하여 시시각각 공화국을 위협하는 핵전쟁광신자들의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세계가 상상 못하는 비상히 빠른 속도로 핵억제력을 강화해왔다.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견지명의 탁월한 선군령도가 있어 어제날 핵위협과 공갈의 대상이었던 공화국인민들은 당당한 핵의 주인으로 되었고 불굴의 신념과 철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핵강국의 당당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단에 이른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핵무기건설의 병진노선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정력적인 령도는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을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게 한 근본요인이다.

공화국은 첫 수소탄시험성공으로 적대세력들을 전율케 하였고 련이온 핵탄두의 전격공개 및 핵무기병기화선언, 대륙간탄도로켓 대기관제돌입환경모의시험성공 등으로 고도로 소형화되고 정밀화, 다중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수단들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표준화, 규격화, 실전화된 새로운 핵탄두폭발시험성공도 국가핵무력완성의 최종관문의 통과를 알린 일대 사변이었고 민족

의 무궁한 번영과 안전을 담보하는 력사적패거였다. 다발적, 련발적인 개발완성으로 강화발전된 공화국의 핵무력은 탄도로켓장착용수소탄까지 완전무결하게 장비하고 다종의 핵탄들을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등 모든 작전공간에 제한없이 운반할수 있는 최첨단타격수단들을 갖추었고 침략자, 도발자들을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생존불가능하게 괴멸시킬수 있는 능력에 도달하였다.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핵억제력과 침략자들을 맞받아 짓밟게 멸적의 의지로 총만되어있는 강한 군대가 있어 수리아에 미싸일을 미친듯이 퍼부으며 새로운 조선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던 미국도 감히 군사적도범에 매달리지 못하였으며 지금 이시각에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굳건히 수호되고있다.

힘이 약한 나라들에 대한 지배세력의 횡포한 군사적위협과 침략, 압력책동으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끊임없는 내전과 분쟁, 테러와 보복의 류혈참극에 시달리고있는 오늘의 국제현실은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군력강화에 최선을 다한 공화국의 자위적조치가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더욱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미국이 핵으로 우리 공화국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영 과거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핵무력이 상대하여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 자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미제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과 우리 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핵공격능력을 부단히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려면 우리도 적들을 항시적으로 위협할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가져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이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중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필요한 시험준비를 더욱 다그치려는것이 공화국의 확고한 결심이고 드림없는 의지이다.

미국이 그 무슨 압박을 운운하며 조선반도주변에 핵전략장비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우리 공화국을 위협공갈하고있

지만 핵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골라 군사적으로 통략하는 미국의 허장성세가 공화국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미국은 《유일초대국》이 아니다.

미국이 분별을 잃고 우리 공화국을 건드린다면 세계가 알지 못하는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에 의하여 만회할수 없는 중국적과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령토와 령해, 령공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위력한 주체무기들이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생존불가능하게 모조리 초토화해버릴것이라는것은 빈말이 아니다. 일본본토와 오키나와, 팔도를 비롯한 태평양전구안의 미군기지들은 물론 미본토까지 공화국의 섬멸적타격권안에 들어있다.

세계제일의 무기로 되고있는 핵병기가 제국주의침략세력에 겨워진것은 불의이고 폭제의 수단이지만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번영을 위해 조선이 들어선 핵은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자위의 핵마치, 정의의 힘으로 되고있다.

동방의 핵강국의 존엄과 지위는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으며 조선의 핵보유위업의 진리성은 영원하다.

본사기자 리 설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여

로동자들의 생활 조건부러 알아보시며

몇해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북방의 한 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전경도앞에서 생산현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먼저 로동자들을 위한 후생시설부터 돌아보라고 하시였다.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식당으로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자체로 만드는 빵과 음료의 맛을 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음료와 빵을 더 잘 만들어 로동자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라고 하시였다. 이어 주방의 온습도는 어떤가, 퇴수는 어디에 있는가도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동자들에게 영양이 미치지 않게 중기와 퇴수를 잘 뽑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로동자합숙에 들리시여서는 침대우에 포개여있는 모포를 만져보시며 모포가 정말 좋다고, 이런것을 로동자들이 리용하고있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을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아끼시던 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을 더 잘 보장해주도록 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모래불에 새긴 자욱

주제102(2013)년 5월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함경남도 마천유원지의 해수욕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수욕장 소나무숲사이 배치된 식당과 휴양각 그리고 그 리용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해수욕철이면 함흥시뿐아니라 평양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지금 있는 휴양각들을 가지고서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겠다고, 현대적인 휴양각들을 더 꾸려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이곳 해수욕장은 날바다이기때문에 해일 피해를 입을수 있는것만큼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일군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본사기자

평양양말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상표는 《철족》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자욱이 어린 강원도 고산과 회양의 경계에 있는 굽이굽이 철령에 만발하게 피는 철족을 상징하고있다. 철족이라는 글자와 꽃이 기호표식으로 상표에 선명하게 그려져있어 수요자를 누구나 그 의미를 쉽게 리해하고있다.

그런데 이전의 상표는 지금과 달랐다. 그러면 어떻게 《철족》상표가 달라지게 되였는가.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7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양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생산공정을 돌아보시고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다그쳐 손로동을 없애고 로력을 절약하며 양말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더욱 개선하도록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장앞에 내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양말 상표도안을 더 세련시키도록 할데 대해서도 강조하시였다.

당시 양말상표는 편직바늘을 상징하는 삼각형과 그 안에 물결모양을 하여 뜨개로 된 편직제품을 상징하는것으로 되어 있었다. 상표는 제품의 얼굴이기도 하다. 상표에는 해당 제품의

내용이 집약적으로 상징화되어 담긴다. 상표를 보면 제품을 알게 되고 실용성과 미적가치도 가능케 된다.

그런데 피곤하면 《철족》상표의 마크는 도로상에 세워놓은 차량들의 운행주의표식처럼 가늠되기도 하였다. 상표의 미숙성은 그뿐이 아니였다. 평양양말공장뿐아니라 선교편직공장도 같이 이어의 편직제품생산지에도 다 맞는것으로 되는

것이였다. 그리고 기공기를 생산하는 기계공장으로도 될수 있는 등 상징적의미는 여러가지로 리해될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였다.

대번에 양말상표의 단점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철족》이라고 지은 상표의 의미에 맞게 공장앞에 상표도안을 잘 만들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렇게 달라진 상표도안을 통하여 그이께서는 미술에 조예가 깊고 산업미술에 얼마나 해박하신가를 잘알수 있는 것이다.

산업미술은 공업미술, 의상미술, 방직미술, 상업미술 등을 포괄하는 실용미술의 기본형식이다. 산업미술은 그 어느 분야와도 련관되지 않은데가

없다. 경제발전은 산업미술을 전제로 한다. 모든 제품은 도안을 선행시키고 그에 따라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게 된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산업미술부문의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며 산업미술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산업미술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척후대의 사명을 수행한다고 하시면서 산업

미술발전과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였다. 산업미술은 제품도안과 상표를 통하여 해당 나라와 제품의 실용적, 미적가치를 가능하게 하며 그 나라의 발전면모와 경제적잠재력, 문명수준을 평가하게 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상표도안문제를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산업미술의 하나인 상업미술에서 기본은 상표도안이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상표는 상품의 본질적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간결성과 집중성, 상징성이 보장되게 상표도안을 형성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말린낙지상표에 생선낙지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것에 대하여서는 상표를 만화적으로 그리

는것이 좋다고 실례까지 드시며 도안형상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산업미술의 역할을 중시하시고 그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는 상표도안뿐 아니라 신발도안들과 간판도안, 광고도안, 의상도안, 화장품도안 등 산업미술전반에 구체적으로 미치고있다.

화장품은 질이 좋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용기의 모양, 상표, 포장판이 좋아야 하며 그러자면 도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거리와 주택지구, 문화시설들과 산업시설 등 모든 건축창조물들을 민족적정서와 시대적미감에 맞게 꾸리는데서도 우리 산업미술의 역할과 발전상은 더욱 부각되고있다. 려명거리와 창건거리,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의 특지형성과 건축물들의 웅장화려한 내외부장식, 상업 및 봉사망들의 간판과 불장식을 비롯하여 현대적이며 아름답고 문명한 생활환경은 창조 의 거장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날로 개화발전하고있는 산업미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김 성 수

◎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조선의 키종할 것 (16) ◎

명당 자리에서 인민이 산다

얼마전 공화국에서는 려명거리가 훌륭히 일떠서 수천세대의 교육자, 과학자, 철거세대들이 새집들이하는 경사가 펼쳐졌다. 이 일대는 풍치수려한 모란봉과 금수산 옆에 끼고 금릉2동굴을 통해서 대동강과 잇닿아있어 말그대로 산을 끼고 강을 낀 명당자리이다.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이 지역에 웅근 하나의 새 도시를 방불케 하는 려명거리가 일떠서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차넘치고있다.

예로부터 산수수려하고 살기 좋으며 온갖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는 자리를 명당이라 불렀다. 그래서 산이 좋고 물이 맑으며 경계가 뛰어난 명당들에는 의례히 전설도 많고 기이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져 오고있다. 이러한 명당에 자리를 잡고 부귀와 향락을 추구해 온것은 고금동서로 부자들, 특권층들이었다. 명당은 땅값도 천정부지로 높아 웬간한 사람은 그런 곳에서 살 엄두도 못내는것이 행성의 보편적인 현실이다.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남조선에서도 명당으로 불리울만 한 곳에는 레외없이 인민이 없고 1%의 가진자, 특권층이 독차지하고있다. 산천경계가 수려한 곳이라면 의례히 부자들이 등지를 틀고앉았으며 그 무슨 《신도시개발》 지역의 호화주택들은 그 값이 천문학적액수에 달하여 한줌도 못되는 특권층에게만 문을 열어주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현실은 이와는 너무도 판이하다. 경치 좋고 교통에도 편리한 명당들에는 하나같이 인민이 리용하는 살림집, 거리, 문화시설들이 솟아있다.

유서깊은 평양시만 보더라도 좋은 자리를 쓰고사는것은 다 근로하는 인민들이다.

산봉우리가 마치 《룡》이 금시 하늘로 날아 오르려는 것파도 같은 기묘한 생김새를 갖추고있다 하여 룡악산이라 불리우는 이 산의 정점에 올라가보면 평양시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안겨오며 풍요한 농촌풍경을 다같이 볼 수 있다. 전망이 아주 좋고 경치가 뛰어난 이곳에는 인민을 위한 탐승길이 닦아져있고 만경대소년단야영소가 자리잡고있어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있다.

은 나라가 다 아는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이 풍치좋은 대동강변에 자리잡고있는것은 물론이고 푸른 물 넘실거리는 대동강 한복판에 등실 떠있는것만 같은 룡라도에는 인민유원지가 꾸러져 찾아오는 사람들로 흥성이지 않는 때가 없으며 축섬에는 인민을 위한 과학기술전당이 새로 웅장하게 솟아났다.

소나무 우거진 평양의 절승

경계인 모란봉에도 인민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수 있게 가는 곳마다 편의봉사시설들과 휴식터들이 꾸러져있고 유희장까지 현대적으로 개진되어 인민의 웃음소리가 아침저녁으로 울리고있다.

인민들이 사는 주택지구, 거리들을 보아도 다 명당자리에 위치하고있다. 수도의 한복판인 만수대지구에 로동자, 사무원들이 사는 창전거리, 인민극장이 솟아나있는가 하면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해 건설한

미래과학자거리도 대동강을 옆에 끼고있어 공기도 맑고 경치도 최고이다.

인민들이 명당자리들에서 행복의 웃음꽃 피우도록 온갖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분은 절세의 위인들이시였다.

오래전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승리할 조국의 배일을 내다보시고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보아주신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평양의 중심부에 주요정부청사들을 많이 들여앉히는것으로 설계된것을 아

시고 그 자리에 정부청사들을 지을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겨낸 영웅적인 우리 인민들에게 살림집부터 세워주자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광장과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승리거리의 수많은 살림집들이 이렇게 일떠서게 되었고 시원한 평양평면과 함께 그처럼 유명한 옥류관도 주석님께서서 몸소 건설을 발기하시교 위치도 정해주신것이다.

한때 일꾼들이 정부청사를 무게있게 앉혀 평양중심을 위엄있게 꾸리자고 아끼던 자리인 남산재에도 주석님께서서는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도서관을 일떠세워주시고 이릉도 몸소 《인민대학습당》이라고 지어주시였다.

비단 평양시만이 아니다. 공화국 각지의 명당자리들에도 인민을 위한 사랑의 건축물들이 솟아있고 어느 명승지를 가보아도 인민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을수 있다. 푸른 바다물과 백사장이 있고 해변가에 소나무들이 우거져있는 동해의 명승 송도원에도 인민을 위한 유원지가 꾸러져있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아담하게 자리잡고있어 근로자들의 웃음, 아이들의 웃음이 시종 넘쳐나고있다.

진정 공화국에서는 명당의 주인이 인민대중이다. 정치와 국가의 주인도 인민들, 학교와 병원의 주인도 인민들이고 모든 창조와 향유의 주인공들도 근로하는 인민들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또 있는가. 명당자리 하나를 통해서도 조선의 인권이 최고이고 공화국인민들처럼 행복한 인민들이 더는 없다는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본사기자 김준경



고국을 방문할 때마다 나만이 아닌 많은 외국인들도 몰라보게 변모되는 평양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한다.

더우기 조선에 대하여 외곡된 표상만을 가지고있던 서방사람들은 커다란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조선에 대하여 좀 안다고 자부하는 나도 평양에 올 때마다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인데 공감되는 일이다.

산천도 그 산천이요, 공기와 물도 그대로이건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기적 그 자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지난해 평양을 떠날 때 금방 착공의 첫 삽을 박았던 려명거리가 최상의 문명이 응축된 리상거리로 훌륭히 일떠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 한 해외동포는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느낀 소감을 《6년전 방문시 귀부인같은 자태에 혼이 나갈것만 같았던 만수대거리》, 《2년전 방문시 미남도 보통미남이 아니라고 감탄하며 훌쩍 반한 창전거리》, 《작년 가을 방문하였을 때 황홀경에 빠졌던 미래과학자거리》라고 표현한바 있다.

이번에 나는 금강산의 1만2천봉우리를 련상케 하는 려명거리의 황홀한 자태앞에 《넋을 잃었다.》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었다.

예로부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건만 오늘 고국에서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 분초가 다르게 변모되는 고국은 말그대로 기적의 나라, 전설의 나라라 하겠다.

새로 개진한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 또한 탄성이 절로 나오게 한다. 입구를 날카로운 송곳이를 드러내고 짝 벌린 호랑이 입으로 형상하고 외형만 보아도 어떤 동물사인지 알수 있게 꾸린 중앙동물원이며 자연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생동한 표상으로 알려주는 자연박물관은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리상과 목표의 웅대성과 고국인민들이 누리는 문명의 높이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으로 일떠선 축섬의 과학기술전당도 별천지에 들어선듯 벌린 입을 다물줄모

구존을 돌아 다닐 때 조선에서는 평범한 인민들이

자기 땅에서 최상의 문명을 한껏 누리가고있다. 예로부터 동방례의지국으로 불리워 온 조선을 세계문명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것이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의지이고 결심이다.

그분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나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엄숙한 선언에서 나는 절세위인을 모시어 부강과 번영, 영광의 최절정에서 세계를 굽어볼 백두산대국의 래일을 굳게 확신한다.

재미교포 김희성

이라고 허망한 꿈을 꾸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선에서는 한껏 달아오른 적대세력들의 《제재》열을 려명거리의 웅장화려한 새집들이 기쁨의 웃음발로 보란듯이 날려보냈다.

그렇듯 신화속에서나 찾아볼기적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조선의 현실앞에,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부신 문명의 창조물들앞에 넋을 잃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이라 해야 할것이다.

조선의 문명을 보면 세계가 창조해야 할 문명의 세계가 보인다

고 나는 확언한다.

서방의 특권층들이 《더 훌륭한 문명》을 맛보겠다고 역대

의 돈을 휘뿌리며 여기저기 지

구존을 돌아 다닐 때 조선에서는 평범한 인민들이

자기 땅에서 최상의 문명을 한껏 누리가고있다. 예로부터 동방례의지국으로 불리워 온 조선을 세계문명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것이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의지이고 결심이다. 그분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나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엄숙한 선언에서 나는 절세위인을 모시어 부강과 번영, 영광의 최절정에서 세계를 굽어볼 백두산대국의 래일을 굳게 확신한다.

모르고 받는 혜택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화국에서는 인민을 위한 온갖 시책들을 실시하고있다.

전반적무상치료제 하나만 놓고보자.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치료를 받을수 있다.

공화국에는 도시와 농촌 그 어디에나 병원, 진료소들이 훌륭히 꾸러져있고 환자에 대한 진찰로부터 검사, 진단, 치료 등이 다 무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입원비, 약값도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최근 몇해사이에 일떠선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같은 돈 많은 부자들이나 리용할수 있는 현대적인 병원들에서도 평범한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치료받고있다.

꽃밭속에 오래 앉아있으면 그 향기를 모른다는 말이 있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하에서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사는 공화국인민들은 간단한 진찰은 물론 경각에 이른 생명을 소생시키기 위한 큰 수술을 받고도 자기들이 받은 혜택이 얼마인지 모르고 살고있다.

언제인가 함경남도의 어느 한 채석장에서 한 로동자가 중상당하였을 때의 일이다. 여러가지 합병으로 죽음의

계선에 들어섰던 그는 보름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사랑의 대지를 마음껏 활보할수 있게 되었다.

후에야 환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정어린 비상조치에 의하여 평범한 로동자인 자기가 이 세상에 두 번다시 태어날수 있음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환자수송에 동원된 운수기재: 직승비행기 1대, 대형러객기 1대, 기타 구급차들

—환자치료와 후송에 동원된 기관: 평양의학대학병원(당시), 단천시인민병원, 조선인민군 항공구분대, 조선민항(당시)

—환자치료를 위하여 무어든 의료집단의 구성: 원사, 교수, 박사, 학사 10명, 의사, 간호원 10명

—환자치료에 사용된 약품의 종류: 사항, 광복항생제를 비롯한 고가약 72종...

환자치료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니 실로 막대한 액수였다.

인민들의 생명을 제일로 여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에 환자는 깜짝 놀라 걱정

의 눈물을 삼켰다고 한다. 한 로동자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며 정성을 기울인 이러한 실례는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오늘 지구 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초

보적인 의료상방조도 받지 못하고 각종 병에 시달리거나 목숨을 잃고있다.

이른바 《현대명명》, 《만민복지》를 떠드는 미국도 병원집수비만 1700US\$, 가장 초보적인 진찰이나 검사를 받자면 8000US\$, 총수염수술비는 8 000US\$나 된다고 한다.

그러니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며 이들에게 있어서 병이 자 곧 불행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알고 받는 혜택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너무도 많다.

《등록금》이란 말도 모르고 국가로부터 장학금까지 받으며 마음껏 배우고 국가에서 지어준 훌륭한 살림집에서 집값을 모르며 행복하게 살고있는것이 바로 공화국인민들이다. 얼마전에도 공화국에서는 많은 자금과 품을 들여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인 려명거리를 일떠세워 교육자, 철거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고마운 제도를 공화국인민들은 삶의 귀중한 보금자리로 여기며 목숨바쳐 사수할 열의에 넘쳐 있다.

정경순

지난 5월 4일 미국회 하원이 《대조선차단과 제재현대화법》이라는것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이라고 하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의 일환인 그 《법》은 공화국의 수출, 수입, 금융통로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공화국과 경제거래를 가지거나 공화국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단체, 개인들까지 제재하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간단히 말하면 《완벽한 제재

어 리 석 은 선택

무릇 사물현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착각을 동반하고 그것은 착오로 이어진다.

공화국에 대한 무지는 미국으로 하여금 시대적착각을 일으켰으며 그것이 전략적착오를 초래한것이다.

핵전쟁위협과 함께 전면적인 경제제재와 봉쇄를 하면 공화국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붕괴》될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무지의 소산이고 허황한 망상이다.

공화국은 장장 수십년간 세기를 이어 감행해온 미국의 제재, 압박, 봉쇄속에서 더욱 강해진 자강력으로 핵강국전열에 들어섰으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있다.

며칠전에 성공한 《주체탄》의 시험발사도,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일떠선 려명거리

봉쇄망》을 형성하여 공화국을 인위적인 《섬》으로 고립시켜 놓고 질식시키겠다는것이다.

현재 조선동해에서 미핵동력항공모함 《칼빈슨》호전단이 남조선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하고있고 그 무슨 《선제타격》이니, 《참수작전》이니 하는 전쟁광기를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속에 미국이 제재소동에 열을 올리는것은 실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수 없다.

도 《가장 강력한》, 《초강도》라는 미국의 제재속에서 실현된것들이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것 같은 애당초 허리띠를 조이며 자위의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것이다. 공화국의 생존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침략의 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제재의 고삐가 조여지는 오늘의 현실은 공화국이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핵위협을 하면 할수록 공화국의 핵무력고도화는 비상이 촉진될것이며 계단식은 전면적이든 제재가 강화되면 될수록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자력자강의 정신은 굳세어지고 대미적개성은 그만큼 배가될것이다.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다 못해 국제법까지 란폭하

게 위반하면서 단독제재놀음을 벌리는것은 무섭게 빠른 속도로 솟구치고 강해지는 공화국의 위용에 질겁한자들의 공포심리의 반영이다.

부연하건대 제재는 한물 지난 미국제체화품이고 공화국에는 통할수 없는 구시대적방식이다.

그 어떤 제재로도 공화국을 《변화》시킬수도, 《굴복》시킬수도 없다는것은 미국의 대조선전문가들도 시인하고있는것이다.

최근 미국의 전직 고위인물들과 조선문제전문가들은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에 대하여 《군사적위협과 계단식으로 확대되는 제재가 조선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트럼프의 가장 큰 실책으로 될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 계속 지금처럼 나간다면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될것이다. 시간은 트럼프의 편이 아니다.》라고 평하였다.

미국은 공화국을 잘못 보았고 잘못 대처하고있다. 오바마의 《전략적인내》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한 현 미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도 시작부터 삐져서러고있다. 그것은 정책이 잘못되었기때문이다.

제재와 《힘》으로는 공화국

어느것이 미국에 리로운 선택인가

을 어찌할수 없다. 《군사적선택안》도 핵무기를 틀어쥐고 《주체탄》까지 보유한 동방의 핵강국에게는 조금도 통하지 않는다.

수십년간 조미대결에서 수차례 참패를 겪을대로 겪은 미국이 또다시 제재따위를 들고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아시아 패권,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야망은 세기를 이어 오지만 여전히 망상으로만 남아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있는 현 미행정부가 공화국을 《최대의 위협》대상으로 찍어놓고 대조선정책을 새로 작성하고 핵전략자산의 투입과 함께 독자제재소동을 벌리는것도 버릴수 없는 패권야망때문이다.

《북붕괴설》, 《북위협설》을 운운하며 《전략적인내》정책을 주물러댔다가 종당에는 참패를 당하고 세계앞에서 망신당한 이전 행정부의 전략적오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현 미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대조선정책으로 내놓았지만 그것도 역시 성공할수 없다.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으로 높이 솟아오른 공화국의 자위적국력에 의해 미국의 패권적지위는 더욱

나온것을 보면 가련하다교박에 달리 말할수 없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이룩하는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에서 깨닫는바가 없다면 차라리 가만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는것이 나을것이다.

조락할것이기때문이다.

그것을 만회해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쳐 보아도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날로 상승하고있으며 이미 대세는 미국에 불리하게 기울어졌다.

기껏 고안해낸 《최대의 압박과 관여》가 《전략적인내》처럼 휴지장이 될것이 두렵고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 불안이 풍지박산난 제재소동에 또다시 매달리게 한것이다.

미국은 《대조선차단과 제재현대화법》 채택으로 남조선 당국을 계속 얹어매고 압박하여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허세는 공화국에 추호도 통할수 없다.

공화국은 이미 미국이 대조선압살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제재와 핵위협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 그리고 적대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옳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

격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나가며 필요한 시험준비를 더욱 다그쳐나갈 단호한 립장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얼마전에 이룩된 지상대지상장거리전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의 대성공도 공화국의 이러한 립장과 의지의 반영이며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이다.

지금 벌어지고있는 조미사이의 마지막 대결전에서 승리의 열쇠를 쥐고있는것은 공화국이다. 미국이 만지작거리고있는 모든 《선택안》들이라는것은 조선에 통할수 없는 한갓 무용지물들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는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것이다. 미국은 자국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공화국의 타격권안에 들어있다는 현실, 섬멸적보복타격의 온갖 강력한 수단이 조선의 수중에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오만해서도 안된다.

미국인들도 주장하는것처럼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최대 불리해지고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될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사태흐름이 립중해줄것이다.

미국은 현대판 《돈 끼호테》와 같은 어리석은 사고를 버리고 현실을 냉정히 들여다보아야 하며 선택을 바로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정혁

아래의 편지와 글은 미국의 《뉴욕타임스》 2017년 4월 26일부에 실린것이다.

트럼프대통령 앞

우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부분 조선전쟁참가국들을 포함한 40개국의 여성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학계, 실업계, 시민사회계, 군부 등 출신의 지도자들로서 각이한 인종, 민족, 신앙, 정견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교만이 조선반도가 직면해있는 핵위기와 전쟁위협을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신념으로 뭉쳐져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의 지도자들은 조선전쟁을 중지하는 정전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들은 3개월안에 이 정전협정을 구속력있는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재협상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때로부터 조선의 북, 남과 미-조선사이에는 견고한 전쟁상태가 계속 유지되고있습니다. 이 전쟁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조선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로 분단되어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 3대를 내려오면서 수백만의 가정의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경계선에 의해 갈라져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조선에서 전쟁을 막고 반도에 숙원인 평화를 안아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할것을 촉구하는바입니다.

1. 북조선의 핵프로그램과 장거리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대신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중지를 포함한 미국의 안전보장장담보협상을 시작하십시오.
2. 1953년 정전협정을 구속력있는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북조선과 남조선, 중국과의 평화과정을 개시하십시오.

여성대표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정 1325호의 정신에 따라 이 평화과정에 명백히 참여할것입니다.

3. 워싱턴과 평양에 미국조선전쟁참전자들의 유골반환과 재미동포들의 흠어진 가족상봉을 전담하는 연락사무소의 설치와 같은 조선전쟁의 상처를 가시시키기 위한 민간외교를 보장하십시오.

1950년부터 조선반도는 핵무

기와 미사일시험, 군사연습의 항시적인 위협을 받아왔으며 이 위협은 7 500만 조선사람들을 항상 불안하게만 하였습니다. 더우기 최근 미국미사일방위체계 《싸드》의 남조선배치는 북과 남, 주변국들사이의 긴장만 초래케 하고있습니다. 미국과 비무장지대의 량쪽 북조선과 남조선에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전쟁준비에 공공자원이 낭진되어 초래되는 경제적궁핍과 두려움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군사화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가장 위력한 전쟁억제력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조선반도와 그 지역에 보다 위대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수 있으며 핵무기확산을 멈춰세울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년동안 역대 미국대통령들이 이룩하지 못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제를 당신이 해낼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핵전쟁을 우려하는 40개국 여성들이 트럼프에게 평화를 촉구

미국의 백악관이 수요일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북조선 설명회를 준비하고있는 가운데 북조선과 남조선, 남조선 40여개국의 여성활동가들이 트럼프대통령에게 군사적긴장을 해소하고 평화협정을 시작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저지시킬것을 촉구하였다.

여성활동가들은 조선반도의 급변하는 긴장상태를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 이 지역이 핵전쟁에 휘말려들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트럼프에게 보내는 수요일(4월 26일)자 편지에는 《우리는 외교만이 조선반도가 직면해있는 핵위기와 전쟁위협을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신념으로 뭉쳐있다. 평화는 가장 위력한 억제력이다.》라고 씌여져있다.

트럼프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서명운동을 조직한 여성평화단체인 《비무장지대횡단여성들》(Women Cross DMZ) 국제조정자 크리스틴 안의 말에 의하면 수백명의 여성지도자들이 이 편지에 서명하였고 바로 이 편지서본들이 수요일 백악관 북조선설명회에 참가하는 여러 미국상원의원들에게 이미 전달되었다.

수요일 미국무장관 렉스 틸러슨과 미국방장관 짐 매티스 가 백악관에서 전체 미국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북조선문제에 관한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다. 이 설명회에는 미국국가정보국장 단 코우츠와 미합동참모본부의장 조세프 단포드도 참가할것이라고 한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과 기타 나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조선이 핵시험을 준비하고있는 상황에 대처하여 미국과 그 동맹국인 남조선, 일본이 군사적준비를 다그치고있는 속에서 진행된다.

《트럼프대통령은 외교와 관

여로써 자신의 협상술을 과시할수 있을것이다. 평양과의 대화는 트럼프대통령 집권 100일 성과를 판단하는 실제적기준이 될것이다.》라고 크리스틴 안은 말하였다.

크리스틴 안은 이번 편지서명운동을 자기 단체가 정세긴장의 위험한 확대를 멈추기 위해 준비한 일종의 《우리식 스무드미사일》이라고 말하였다. 지난 몇주동안 워싱턴은 필요하다면 군사적선택을 하여서라도 북조선의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를 멈추겠다고 공언하면서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조선반도수역으로 기동시켰다. 북조선은 자기 식의 선제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핵전쟁을 경고하였고 여러 미사일시험을 강행하였다.

트럼프에게 보내는 편지는 북조선의 사회주의여성동맹의 서명도 받았다. 크리스틴 안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서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북조선의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부녀맹단체가 평양 중앙정부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독자적인 행동은 하지 않기때문이라는것이다.

《비무장지대횡단여성들》(Women Cross DMZ)에서 발간한 공보에는 《평양과 워싱턴사이의 이른바 유일한 소통이 란 (B-1) 폭격기와 핵항공모함, 미사일, 핵시험과 같은 군사력의 위협뿐이다. 이 위험한 정세는 이 지역의 모두를 위협하고있다.》라고 한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동맹 국제위원장 코우주에 아키바야쉬의 발언내용이 실려있었다.

대북지원사업을 많이 해온 인도주의활동가 스웨리에언에와 에릭슨은 트럼프대통령이 북조선에 대한 원유공급제한 등 쌍무적제재를 더 강화하려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시

하였다. 트럼프에게 보내는 편지에 서명한 포티에선생은 《우리는 취약계층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특정제재를 반대한다. 일반사람들에게는 트랙토르와 기계를 돌릴수 있는 기쁨이 필요하다. 그래야 재난과 흉수를 막을수 있고 더우기 식량과 깨끗한 물, 위생을 보장받게 된다.》고 말하였다.

여성활동가들은 트럼프대통령에게 중국이 제안한대로 북조선이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그만두는 대신 미국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중단을 포함한 조선반도안전을 담보하는 협상을 벌릴것을 촉구하였다.

그들은 또한 트럼프에게 평화협정협상으로 조선전쟁을 공식 끝냄으로써 북조선위기의 근원을 해결할데 대하여 촉구하였다. 1953년의 이 정전협정으로 총성은 멎었지만 아직까지도 조선반도는 기술적인 전쟁상태에 놓여있다.

《70여년동안 고립과 무장, 군대, (최후의 날)위협 같은것이 한때 단일국가였던 이 나라를 갈라놓고있다. 이제는 지도자들이 이 위협을 중단하고 이 위협을 인식하며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미국여성해방론자이며 작가인 클로리아 스타인버그의 발언내용이 《비무장지대횡단여성들》(Women Cross DMZ)에서 발간한 공보에 실렸다.

2015년 5월 《비무장지대 횡단여성들》(Women Cross DMZ)은 스타인버그 두명의 노벨상수상자를 비롯하여 30여명의 여성평화활동가들이 참가한 두개 조선을 가로지른 비무장지대횡단행사를 조직하여 세계의 이목을 분열된 반도의 평화보장필요성에 집중시키기도 했다.

미국은 군사적압박으로 조선을 놀래울수 없다

싱가포르 외교관들이 주장

싱가포르의 현직 및 전직고위 외교관들속에서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공갈은 효과를 볼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미국과 서방이 내몰리는 보도의 진실성여부를 잘 가려보고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싱가포르의무성 순회대사는 최근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한국제토론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은 미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개발하려는 조선을 멈춰세울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이 조선을 공격하는 경우 남조선과 일본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동

맹국》들의 신뢰는 완전히 허물어질것이라고 하면서 미행정부가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락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 유엔주재 싱가포르상임대표는 신문 《스트레이크 타임스》에 《서방언론이 조선의 위기를 어떻게 그릇되게 대하고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글에서 일부 사람들이 흑백을 전도하는 서방언론보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정부는 실지 무분별하지 않으며 전쟁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미국과 서방의 언론들이 조

선에 대한 군사적선택안을 떠들고있지만 군사적압박으로 조선을 옥죄일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천진하기 그지 없으며 《칼빈슨》호핵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반도수역에 파견한것도 공언한것일뿐 조선을 놀래울수 없었다.

조선에 대한 압박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한다면 조선정부에 안전을 보장한다는 담보를 주어야 한다.

그는 싱가포르사람들은 조선에 대한 서방의 언론보도에 접할 때 회의심을 가지고 객관적인가 아니면 외곡되었는가를 잘 가려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실현하여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며 어느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의 힘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거족적위업이다. 그런것만큼 우리 나라의 통일일은 북과 남의 온 겨레가 주인이 되어 통일운동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설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6.15시대의 전진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사상과 정견, 당파와 소속의 차이를 뛰어넘어 온 민족이 참가하는 거족적운동으로 급속히 확대발전되었다.

돌이켜보면 6.15공동선언이 채택되기 이전 시기에도 북남사이에는 범민족대회를 비롯한 일련의 통일행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전환되고 평양과 서울, 금강산과 제주도, 부산과 광주, 인천을 비롯하여 북과 남의 각지에서 수많은 통일행사가 진행되어 겨레의 통일열기를 과시하였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학자, 언론인, 체육인, 종교인 등 북과 남의 각계각층이 통일운동의 주역으로 당당히 나섰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6.15공동선언지킴이를 위한 북남로동자통일대회, 북남농민통일대회, 북남청년학생통일대회, 북남녀성통일대회, 북남

다시 찾아야 할 6.15(5) 누구나 통일의 주인이 되어

교육자대회, 민족작가대회를 비롯한 북과 남의 계층별 통일대회들과 상봉모임, 토론회들이 광범히 벌어졌다.

이 모든 통일행사들에서는 한결같이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천하며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앞당겨 나갈 결의들이 표명되었으며 그것을 반영하여 선언문, 그조문, 성명 등 공동문건들이 만장일치로 채택발표되었다.

통일행사들에서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통일의 마치소리를 더 높이 울려 나갈것을 결의다졌고 농민들은 통일된 새땅에서 밭갈이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것을 결의했다. 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최선봉에 설것을 더욱 굳게 다짐했고 여성들은 통일의 한쪽수레바퀴를 더욱 억세게 밀고나갈 의지를 피력했다. 언론은 언론대로 화해와 통일의 목소리를 높였고 종교인들은 기도를 해도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이 하나되는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를 하였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은 여러 국제체육경기대회들에서 통일을 휘날리며 공동입장

함으로써 온 세계에 우리 민족의 통일지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전민족적인 리념으로 된 가운데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한 전민족적통일운동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도 결성되었다.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공동선언발표이후 통일운동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발전시켜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갈수 있는 민족대단결의 모체, 조국통일의 강력한 추동력

이 마련되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운동은 당국과 민간이 따로없이 온 민족이 함께 하는 거족적운동으로 더욱 확대발전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6.15공동선언발표 6돐을 맞으며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하여 북과 남의 당협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도 결성되었다.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공동선언발표이후 통일운동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발전시켜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갈수 있는 민족대단결의 모체, 조국통일의 강력한 추동력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

에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운동도 더욱 고조되었다.

남조선에서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 수십여개의 학생,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련대(《통일련대》)와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공동추진본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련대를 비롯하여 수많은 통일운동단체들이 출현하고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련합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졌다.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은 서로 지지하고 련대련합하여 민족의 화

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공동투쟁, 련대투쟁을 힘있게 전개해나갔다.

참으로 6.15시대의 나날들은 북과 남의 온 겨레가 한목소리로 우리 민족끼리를 웨치며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온 격동과 환희의 나날이었다.

그러나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반통일보수 《정권》의 련이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

남조선의 《리명박근혜정권》은 지난 근 10년간 북남관계를 극도의 적대관계, 대결관계로 만들어버렸다. 통일의 일방인

동족에 대한 대결의식만을 고취하며 통일운동자체를 말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어왔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주장하는 통일운동단체들과 민간단체, 인사들에 대해서는 파쇼악법인 《보안법》에 걸어 《종북》, 《리적》, 《간첩》으로 몰아 가혹하게 박해, 탄압하였다.

민족의 통일운동이 거족적으로 벌어졌던 6.15시대와 통일애국의 의로운 활동이 남조선에서 여지없이 말살당한 지난 근 10년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6.15는 곧 민족의 화해이고 단합이며 나라의 통일이고 평화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똑똑히 절감하고 있으며 투쟁으로 그때와 같은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반드시 안아오고야말 열의를 드높이고있다.

본사기자 최 광 력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

7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민족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생사존망의 문제이다. 더우기 오늘과 같이 외세에 의해 핵전쟁의 검은 불구름이 삼천리강토와 민족의 머리위에 시시각각 물려오고있는 준엄한 현실은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뭉쳐 조국통일의 민족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돌이켜보면 장구한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온 나날이기도 하다. 오늘날 조선민족의 피가 끓고 조선사람의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 리념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사활적과제인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해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귀중한것은 없다. 평화호투쟁은 민족의 생존터전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정들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수역에 핵전쟁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을 평판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반전평화수호투쟁에 적극 떨쳐나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과 동도들사이

의 련대련합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남조선에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변하지 말아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기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바로 여기에 민족의 자주도 있고 나라의 평화도 있으며 조국통일도 있다. 온 겨레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위한 련대투쟁, 공동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의 차이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북과 남의 각 정당, 단체들이 접촉과 래왕, 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성원으로서 통일에 한 마음한 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렬리간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 다는것이 바로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기어이 실현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야 말것이다.

리도선

적극적인 「백두대간」추진

남조선에서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통일준비위원회》가 존재냐, 폐기냐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고 한다.

회세의 반통일대결광녀 박근혜가 만든것인데다가 전혀 유명무실한 기구이니 전문가들도 이 기구가 해체될수 있다고 저마다 말하고있다.

이름은 그럴듯한데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돈만 축내는 《통일준비위원회》이다.

반통일대결광녀 박근혜는 《북이 3년이면 망한다.》는 최순실의 너두리를 끝이 믿고 《흡수통일》을 준비하려고 이따위 기구를 서둘러 만들어내었다.

《흡수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혀 《평화통일의 청사진》과 《통일헌법》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통일부, 외교부, 정보원, 법무부, 《국회》 등 당국과 정치권, 민간단체를 망라한 《대통령》직속기구로서 이 기구를 내왔다. 그리고 위원장자리에는 제가 틀고있었다.

명색이 《통일준비위

회》라지만 실지 한것은 북남대결을 부추기고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어리석은 놀음뿐이었다.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는자는 공개석상에서 《통일이 되면 북의 지도층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있다.》느니, 《북 지도층수자도 상당하고 로동당원 등 성분이 다양하기때문에 구분해서 처리해야 할것》이라느니 하는 너두리를 공공연히 뱉치며 각계의 비난을 받았다. 위원장이라는 박근혜 또한 제가 직접 나서서 《북 급변사태에 대비할 준비를 착실히 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전문위원이라는자가 그 누구의 《붕괴》시 대응준비와 관련한 문건이 저장되어있는 USB기억기를 빼앗아 가지고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서려다 적발된 하나의 사실만 놓고서도 박근혜역적책당이 그 무슨 《통일의 밑거름》이라고 극구 찬양하던 《통일준비위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 기구인가 하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달팽이가 바다를 건널수 없듯이 개꿈은 언제가 개꿈으로 남아있게 되는 법이다.

박근혜가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내오고 《체제통일》야망실현을 위해 그토록 악을 써냈지만 공화국에서는 《변화》나

《붕괴》의 킬끝만 한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도 벌벌 떠는 동방의 핵강국으로 치솟고 정치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굳건해진 공화국이다.

결국 본래의 기도도 이루지 못하고 인민들의 막대한 혈세만 탕진했다. 그리고 북남관계를 더욱 해치고 통일에 역행하는 나쁜짓만 해와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에게서 《반통일준비위원회》라는 치욕의 락인만 찍히우게 되었다.

박근혜는 《북조선이 망한다.》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고 갖은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렸지만 종당에 망한것은 자기자신이고 역도의 사대매국 《정권》이다. 박근혜가 련사와 민심의 심판을 받고 법정에서 세게된 지금 《통일준비위원회》가 폐기의 위기에 놓인것도 열백번 당연하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동족대결과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한 그가 누구이든, 어떤 기구이든 수치와 파멸의 운명에 처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도 《흡수통일》 추구는 존재자체가 재앙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바란다. 통일방해위원회는 박근혜와 함께 가라.》, 《영리기구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김 명 성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강화조치를 결코 드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우리의 새형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가 지구를 박차고 만리대공을 치솟으며 날아올라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맹주국의 위용을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한 격동적인 소식은 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온 겨레에게 민족적공기와 자부심을 한껏 북돋아주고있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미제와의 대결을 끝장내고 최후승리의 통장훈을 부를 또 하나의 완벽한 무기체제, 《주체란》의 탄생을 선포한 민족사적패거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참으로 중대하고도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침략자의 정수리에 정의의 핵철위를 내리고 도발자들의 핵공갈을 무자비한 핵억제력으로 다스리는 우리의 핵보검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수억만생명을 지켜주고있다는것은 자라가 공인하고있는 엄연한 현실로 되고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니, 《위반》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진행한 새형의 로켓 시험발사의 평화수호적성격과 역사적의미를 오도하며 큰 변이나 난듯이 소란을 피워내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돌리로 전략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또다시 내세워 그 무슨 공보문이라는것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인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더욱 아연케 하는것은 새로 집권한 남조선당국이 이번 시험발사의 사변적의의를 외면하고 무력대고 외세와 맞장구를 치며 온당치 못하게 놀아내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로켓시험발사소식이 전해지자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홍용표와 같은 박근혜 잔당들까지 불려들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유엔결의위반》이니, 《엄중한 도전》이니, 《새 정부에 대한 시험》이니 뭐니 하며 그 무슨 《규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피뢰군부호전광들도 《만반의 대비태세》와 《한미동맹을 통한 응징》을 부르짖으며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퍼눈이 되어 광분하고있다.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때마다 《도발》이니, 《응징》이니 뭐니 하고 독을 쓰며 날뛰던 박근혜당의 가증스러운 볼골을 상기시키는 광경이 아닐수 없다.

우리의 새형의 로켓시험발사는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전쟁침략위협으로부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를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우려하고있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조선반도주변에 《칼빈슨》호핵항공모함타격단을 비롯한 핵전략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며 무모한 반공화국압살과 북침전쟁책동에 발광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최근에만도 미국은 우리에게 대한 《선제타격》을 떠들며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을 편이어서 강행하였으며 이에 편승하여 피뢰군부호전광들과 일본반동들도 우리를 겨냥한 탄도미사일과 간첩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경쟁적으로 발사하였다.

미국과 그 주구들의 이러한 망동이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엄중한 평화과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유엔은 꿀먹은 벙어리시늉을 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저들이 감행하는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는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로 되고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핵시험과 로켓발사는 《도발》로, 《위협》으로 된다고 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날강도의 파렴치한 꾀변이다.

더우기 남조선에서 우리의 이번 로켓시험발사에 대해 《새 정부에 대한 시험》이니 뭐니 하는 망발들이 튀어나오고있는것은 우리에게 대한 무

지와 오판에서 나오는 황당무계한 잡소리에 불과하다.

명실상부한 핵강국인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어떤 경지에 올라있으며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재부가 얼마나 귀중한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무력대고 시비질부터 해대는 남조선당국의 추태야말로 어리석고 가궁하다해야 할것이다.

우리의 자위력강화조치는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사로서 미국에서 행정부가 교체되고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중단되거나 속도가 늦추어지는것이 결코 아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이 날로 가증되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핵보복타격능력은 더욱 높은 속도로 강화되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이 그 무슨 《압박》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위협공갈하고있지만 핵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골라 군사적으로 통략하는 비겁한 미국식세는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수 없다.

미국은 미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안에 들어있고 섬멸적 보복타격의 온갖 강력한 수단이 우리의 수중에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외판해서도 안될것이며 부질없는 경거망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서빨리 건드린다면 사상 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것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과 적대세력들,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제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이 아니며 우리가 상용한 보복수단을 쓰는 날에 실제조선의 탄도로켓들이 미국에 설치로 위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것을 속시원히 보면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외세에 들어붙어 《북핵위협》나발을 불어대며 동족을 해치려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박근혜역도년의 가련한 운명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핵무력강화조치를 시비중상하며 우리의 존엄과 체체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추호의 자비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중화된 핵무기들과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를 비롯한 핵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며 필요한 시험을 더욱 다그쳐 나갈것이다.

주제106(2017)년 5월 18일 평 양

약자의 핵전쟁 억제

얼마전 공화국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로케트 《화성-12》형의 시험발사 대 성공소식에 화들짝 놀란 미국은 이번에도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유엔에서 《성명 발표》니, 《추가 제재》실시니 하며 북악소동을 피워내고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칼빈슨》호핵동력함공모함타격단을 동원한 연합해상훈련을 계속 강행하고 《로날드 레간》호를 주축으로 하는 핵항공모함타격전단까지 조선반도수역에 들이밀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에 게서 급소를 찔러온 약자의 허장성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 공화국이 자위적핵억제력강화의 일환으로 지상대지상중장거리

탄도로케트시험을 단행한것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떠들며 감행되는 미국의 제재와 위협소동이 극히 무모하게 벌어지고있기때문이다.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핵위협이 자기에 대한 핵위협이 증대될수록 자위의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질량적으로 강화해나가는것은 공화국의 단호하고 시종일관한 립장이고 기질이다.

이번에 새형의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성공으로 공화국의 핵타격능력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국제무대에서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맹주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만일 미국이 현실을 오판해서 부질없는 경거망동으로 공화국을 서빨리 건드린다면 사상 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하게 되어있다. 미국이 2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반도수역에 들이민다 어쩐다 하며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강화하고있지만

그것은 도리어 저들의 본토안전만 더욱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고 우둔한것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제재소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린다고 해도 그것은 공화국에 대해서 조금도 맥을 찡출수 없다. 극도의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공화국이 자력으로 핵공격능력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강화하면서도 해마다 현대적인 새기업을 일떠세우고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고있는것도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제재압박책동이 아무런 맥을 추지 못하는 숨방망이와 다름없는것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 있다. 제재를 받을대로 받으며 최강의 오늘에 이른 공화국은 두려울것도 없고 헤쳐나가지 못할 난관도 없다.

승리의 결승주로에 당당하게 들어선것은 정의와 힘을 다 갖춘 공화국이다.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선택을 옳바로 해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이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얼마전 미중앙정보국은 공화국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조선특별임무센터》를 새로 조직한데 대하여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대조선특별임무센터》는 미중앙정보국의 해당 부서들뿐 아니라 미국내의 대조선관련 정보기관들과 협력하여 공화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미국은 《대조선특별임무센터》의 창설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의 《핵, 미사일위협》에 통합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요란하게 광고하고있다.

남조선국방부도 공화국의 모든 지역에 대한 통신정보를 감청할수 있는 신형정찰기를 올해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떠들어대면서 미국의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에 적극 편승해나서고있다. 지금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정찰기의 도입으로 《군의 대북정찰감시기능이 대폭 향상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북의 미사일발사단추를 누르는 순간을 알수 있게 되었다.》고 떠들면서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드러내보이고있다.

이것은 존엄없는 공화국의 《체제전복》과 북침전쟁을 노린것으로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행위가 아닐수 없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저들의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을 빼앗아 내놓고 공개하면서 북침대결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 것이다.

원래 미중앙정보국은 최

지금까지 그 내부의 조직구성과 기능, 역할 등에 대해 공개한적이 없었다. 더우기 특정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조직을 내는데 대하여 공개하는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최근 미국은 중앙정보국안에 《대조선특별임무센터》를 내오고 남조선강점 미8군 501정보부대에 524정보대대를 내오는것을 비롯하여 저들의 대조선정보력강화조치들을 공개하는 놀음을 빈번히 벌여놓고있다.

현실은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이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오산하고 있다. 공화국은 이미 국가보위성 대변인성명을 통하여 이 세상 가장 비렬하고

잔악한 특대형테로집단인 미국과 남조선정보모략기구들을 소탕하기 위한 정의 반테로타격전이 개시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였다.

국가의 안전과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반공화국적대시압살책동을 앞장에서 벌리는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정보원을 비롯한 음모와 모략의 소굴, 이 세상 악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려는것이 공화국의 단호한 결심이 고 의지이다.

미국은 이제라도 공화국의 응당한 경고를 새겨들고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오늘의 현실을 외면하고 부질없는 남공화국대결소동에 매달리면서 계속 도전적으로 나온다면 가장 비참한 종말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본사기자 김영진

친미보수의 최악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속에서 민심에 역행하는 잡소리들이 계속 튀어나오고있다.

얼마전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시기 저들의 최악이나 다름없는 력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문제와 관련하여 《수년간 노력끝에 완성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것은 독선적발상》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런가하면 《개혁을 빌미로 보수를 불태우고 케겔시켜보려는 의도》라고 하면서 《세월》호참사파를 반대장단사건 재수사를 반대해나섰다.

력사교과서 《국정화》 놀음이나 《세월》호참사는 집권 전기간 민심을 거

역하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만을 일삼아온 박근혜역도와 그의 나쁜 손발이 되어 범죄행위들을 앞장에서 집행해온 보수패거리들의 최악중의 하나이다. 《세월》호에서 애어린 꽃망울들이 살려달라고 애라게 부르짖을 때 한갓 머리장질로 시간을 보내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것이 바로 박근혜이고 그 패거리들이다.

지난 10일부터 며칠동안 《세월》호선체에서 련이어 발견되고있는 사품들과 유해들은 사람들이 죽는 말든 세 불장만 보면서 온갖 못된짓만을 골라한 보수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

노를 더욱 자아내고있다. 그런데도 지금 보수패거리들은 저들의 죄행을 반성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모든 사건의 배후엔 북이 관여하고있으며 종북좌파들이 그 흉위병들》이라는 황당한 꾀변까지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박근혜역도가 저지른 모든 범죄행위의 공범으로서 어떻게 하나 박근혜의 죄행을 무마시켜야 저들도 살수 있다는 보수역적패당의 간악한 흉계의 발로이며 저들에게로 쏠리고있는 민심의 지탄과 여론을 탄데로 돌려보려는 알은 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제아무리 발악해도 그 추악한 본색과 죄악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 《세월》호참사를 비롯하여 박근혜의 범죄행위들을 끝까지 파헤치라는것이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보수역적패당이 민심에 역행하고 내외여론을 기만우롱하는 어리석은짓에 매여달릴수록 그것은 오히려 저들의 자멸만을 재촉하게 될것이다.

박근혜의 비참한 말로가 보여주듯이 민심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차츰질것은 수치와 파멸뿐이다.

정문혁

반공화국책동과 《싸드》배치의 중지를 요구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싸드》배치의 즉시 중단과 반입된 장비의 철거, 《대북》제재중지를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싸드》배치는 평화와 안보, 주권에 저촉되는것으로서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들은 지금도 성주의 하늘에는 미군직승기가 돌아치면서 《싸드》배치를 위한 장비들을 실어나르고있다고 성토했었다.

성주골프장과 하늘길마저도 불법적으로 미군의 소유가 되고말았다고 하면서 그들은 《싸드》배

치는 중지되어야 하며 하루빨리 평등한 《한》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남북대화에 대해 《특정한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발언한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것으로서 엄연한 내외정간섭이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그들은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와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리행을 당국에 요구하고있는 일본정부를 규탄하면서 미국이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구축을 위해 남조선을 희생물로만 들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주요인사이드뉴스

최근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국가테러를 감행하려던 미중 양정보국의 남조선정보원의 특대형범죄는 우리 민족과 세계를 경악시켰다.

허바닥이 분주하게 《반테러전》을 운운하며 테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공화국에 《테러지원국》의 감투를 씌우려던 미국이 바로 진짜 테러의 본산지이고 주범이며 남조선의 정보원은 미국의 철저한 어용 테러집단이라는 것이 청천백일하에 다시 한번 날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입도 빙긋 못 하는 미국의 침묵은 그들이 이번 특대형범죄를 계획하고 조직했다는 데 대해 시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뻔뻔스레 투덜대는 남조선의 정보원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해야 하

겠는가.

한두사람에 대한 테러 행위 자체도 인류의 격분을 자아내는 최악인데 동족을 상대로, 그것도 미국의 손발이 되어 용서 못할 특대형테러에 앞장선자들이 바로 남조선의 정보원 것들이다.

지난 2012년에 폭로된 것처럼 리병호를 비롯한 정보원의 동족대결광신자들은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외곡하여 불순한 정략적목적에 악용하는 것도 성차지 않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훼손시키려는 《동까모》 사건도 조작하였는가 하면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특대형국가테러음모까지 꾸미며 반공화국모략과 《제도전복》 책동에 불붙을 가리지 않고 날뛰고 있다.

공화국의 국경일대에서 가지가지의 너울을 쓰고 공화국주민들을 유인, 랍치하고 《탈북》을 조장해온 것도, 날조된 자료들을 제공하며 《북인권》 소동을 배후에서 조종해 온 것도 정보원의 음흉하고 악랄한 짓거리들이다.

《금번사태》설, 《소요사태》설, 《북붕괴》설을 류포시켜 공화국의 내부와외부, 《제도전복》을 꾀한 죄악도 있다.

미국의 지령에 따라 정보원이 조작해내는 요설과 사건들로 하여 북남관계가 더욱 만신창이 된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남조선에서 독재권력의 도구가 되어 정보원녀직원 개입사건을 일으키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비롯하여 수많은 《중북》소동을 뒤에서 연출해온 것도 몹쓸 정보원이다. 남조선 인민들이 파쇼악법이라고 랍인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작하는 데서도 정보원이 주역을 놀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동족에 대한 특대형국가테러사건에서 또 다시 증명된 것처럼 남조선 정보원의 뒤에는 미국의 마수가 뻗쳐 있다.

북남관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모략의 소굴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새 정치, 새 생활도 제대로 이룰 수 없으며 앞으로 어떤 더 큰 화가 초래될지 알 수 없다.

공화국은 이미 특대형 국가테러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마치 막 한눈꺼피 추호의 자비도 없이 무자비하게 처형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 대상에는 미중양정보국의 테러광신자들과 함께 남조선정보원의 친미사대역적들, 대결광신자들도 속해있음은 두말할 것 없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친미사대, 동족대결 기구는 당장 해체해버려야 마땅하다.

본사기자 리철민

동족대결을 노린 유치한 모략선전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랜섬웨어》라는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악성 프로그램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라는 단어를 합성한 용어로서 컴퓨터체계를 잠그거나 정보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다음 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의 하나라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조작체계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네트워크》(컴퓨터조작체) 《웜》(Worm-자가자신을 복제하면서 통신망으로 확산하는 컴퓨터바이러스)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만들어졌는데 해당 나라들의 컴퓨터들이 인터넷에 접속만 하여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한다.

이번에 감행된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으로 5월 13일 하루동안에만도 유럽과 아시아의 99개 나라들에서 7만 5000여건에 달하는 각종 피해들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국제적인 이 사이버공격사건을 계기로 남

조선에서 또 하나의 반공화국모략선전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연합뉴스》, 《서울경제》, 《KBS》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전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해킹의 배후에 북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악성코드는 북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래저러스》라는 해커집단이 리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미국가정보국은 북의 사이버 공격을 주요위협으로 집중 조명하였다.》는 등의 황당한 나발을 불어대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여기에 남조선의 군부인물들까지 맞장구를 치면서 《인포콘》(사이버정보작전방호태세)을 한단계 격상시킨다 어쩌다 하며 모략선전의 신빙성을 부여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남조선내부에서 급격히 높아가는 북남관계개선요구를 막아보려는 보수패거리들의 추악한 흉계에 따른 또 하나의 모략날조소동에 다름 것이 아니다.

어디서 무슨 상스럽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소리만 나면 무작정 《북

의 소행》으로 몰아대는 것은 동족대결에 이골이 난 남조선보수세력들이 써온 상투적수법이다.

지난 시기에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이 다짜고짜 《북소행》이라고 우겨대던 《농협전산망마비 사태》, 《GPS전과교란사건》 등도 다 저들의 내부가 어수선해지자 위기모면을 위해 들고 나온 유치한 모략사건들이었다.

사람들은 보수패거리들이 산판에 내버려진 번소문짜 《북무인기》라고 우겨대다가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었는 사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이 《랜섬웨어》 사이버공격사태를 계기로 《북배후》설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 역시 그러한 판에 박은 발작중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내부에서 《북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 《북의 소행처럼 보이게 하려고 코드를 흉내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울려나오고 있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다.

사이버공격피해를 입은 150여개 나라들중 이번 사태를 공화국과 결부시킨 나라는 없다. 오히

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속에서는 《랜섬웨어》 사이버공격사건을 초래한 범죄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이 《북배후》설을 떠들어대고 군부패거리들까지 그에 맞장구를 치면서 《사이버정보작전방호태세》를 한 단계 격상시킨다 어쩌다 하고 부산을 떨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모든 것이 동족대결에 환장한 보수패거리들의 배후조종에 따른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그러한 모략광대극에 매달릴수록 민족의 버림받고 최악의 위기에 처한 저들의 추악하고 가련한 몰골만 더욱 드러날 뿐이다.

남조선의 보수패당과 그 시너노릇을 하는 사이비언론들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드는 역적무리들에 대한 공화국의 징벌에는 자비가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경계망동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강현철

광주의 영령들은 잠들지 못한다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돌이켜보면 광주인민봉기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사에 크게 기록될 영웅적인 항쟁이었다. 미국의 배후조종을 받은 전두환 군부파쇼도당의 출현으로 울려나던 민주주의의 깃이 다시 짓밟히고 쿠데타 《정권》, 군부독재 《정권》이 다시 연장될 위험이 조성되자 남조선인민들은 반파쇼민주화투쟁의 불길에 도처에서 지펴졌다. 광주는 인민들의 이런 민주화열망이 최대로 분출된 지역이었다. 광주의 의로운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을 쫓아 죽이라!》, 《양키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내들고 대중적인 항쟁에 떨쳐나섰다. 이에 군부파쇼도당인 군대를 내몰아 살인집압공격을 펼치자 인민들은 더욱 분노하여 무장을 들고 항거하였다. 광주인민봉기는 불의와 독재를 용납치 않으며 투쟁으로 민주주의 새봄을 안아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굳은 기개를 남김없이 파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군사파쇼도당은 광

주시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폭도들의 란동》으로 묘사하면서 환각제를 먹인 공수특전대야수들을 내몰고 장갑차와 직승기까지 동원하여 시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학살과 진압작전을 벌였으며 하여 광주시는 살벌한 《피욕탕》으로 화하게 되었다. 최근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당시 계엄군이 지승기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기관총사격을 퍼부은 총탄자리들이 발견되고 부상자들이 가득찬 병원침실까지 총칼을 휘두르며 뒤진 범죄적만행이 새로 드러나 모두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처럼 군사파쇼도당의 살인죄악은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자유와 민주를 갈구하는 의로운 항쟁시민들을 무참히 도륙하게 한 것은 미국이 쥐여준 미국제 총과 탄약이었다. 남조선의 군사통수권을 틀어쥔 미국은 전두환군부강제집단의 짐승도 낮을 불힐 살인만행을 뻔히 보면서도 못 본체 했고 오히려 항공모함을 비롯한 전투합선들을 남조선수역에 대적으로 들이밀어 군사파쇼도당의 살인집압작전을 군사적으로 뒤받침해

주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남조선에서 광주대학살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살인자들에 대한 특폭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대학살을 배후조종하고 목인방조한 미국의 역사적인 죄악이 세월의 이끼에 덮여 아무 일도 없은 듯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수천명 광주시민들의 피를 두손을 짚신 살인광 전두환역도가 아직도 살아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 역시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을 우롱모독하는 일이다. 전두환역도는 열백번 처형받아도 달게 받아야 할 처지이지만 자그마한 반성과 사죄도 없이 지금 이 시각까지 저들의 살인만행을 합리화하면서 광주의 항쟁용사들을 《폭도》라고 마구 욕질해대고 있다.

전두환의 《5공》에 몸담고 그 뒤를 이어 독재권력을 지속시켜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친미보수패거리들도 광주정신을 모독하면서 인민들의 민주와 통일지향에 전면 역행하고 있다. 광주인민봉기참가자들의 민주화정신과 녀의

상징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기념식장에서 제창하지 못하게 지껄어 악랄하게 가로막은 것도 바로 남조선의 친미보수패거리들이다.

광주의 영령들은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고 인민들의 뭉친 힘은 독재의 아성도 무너뜨린다.

남조선에서 《유신》독재부활과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던 박근혜역도가 초불민심에 의해 탄핵되고 감옥에 끌려갔으며 그 장담들도 함께 천사의 심판을 받은 것은 천만만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남조선사회에 어둠을 몰아오고 민심을 짓밟아온 부패보수세력들은 아직도 기가 살아서 어둠의 과거를 되살리려고 발악하고 있다.

현실은 부패로 얼룩지고 암흑을 몰아오려는 친미보수패거리들을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혜성

외세추종과 동족대결은 자멸의 길

세월이 흘러도 남조선에서 박근혜반역 《정권》이 저지른 최악은 결코 덮어버릴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만큼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앞에 씻을 수 없는 만고죄악을 저지른 박근혜역도다.

박근혜역도가 외세에 추종하면서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던 최악도 겨레가 용서 못할 특등죄악중의 하나이다.

다 아는 것처럼 박근혜도당은 미국산전의 《북핵포기》소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조선반도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동족의 자위의 핵을 터무니없이 힐뜽으며 온갖 대결책동을 다 일삼았다.

사실 공화국이 핵을 쥐게 만든 것은 시종일관 핵으로 공화국을 위협해온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역적무리들은 민족에게 핵합화를 들춰우려는 미국의 핵은 당부에 올려놓고 그에 맞선 동족의 자위의 핵을 없애버리지 못해 지랄발광하였

다. 이것이 공화국을 무장해제시켜 복침기도를 실현하고 《체제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을 끝끝내 이루어보려는 범죄적인 반민족적망동이라는 것 더 말할 여지가 없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곧잘 외우던 박근혜역도는 동족압살을 위해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마구 끌어들이어 남조선인민들의 머리위에 언제 터질지 모를 미국의 핵이 항시적으로 떠있게 하는 천인공노할 망동도 서슴치 않았다. 지어 북남이 흘러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협의하던 그때조차 하늘에 미국핵폭격을 띄워놓고 공화국에 대한 핵타격훈련을 하게 만들었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미국에 덮어놓고 추종하면서 상전의 앵무새가 되어 집안에서나, 집밖에서나 《북핵포기》를 게을리하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동족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구걸한 역도년의 친미굴종과 동

족대결의 범피적행위로 하여 북남관계는 완전 파산되고 지금과 같은 최악의 전쟁위기까지 조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외세에 추종하여 민족을 반역한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친미굴종의 화신이며 동족대결광인 박근혜가 초불민심에 의해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최수북을 걸치고 감방에 처박히는 신세가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박근혜역도와 그 《정봉문제》를 협의하던 그때조차 하늘에 미국핵폭격을 띄워놓고 공화국에 대한 핵타격훈련을 하게 만들었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민족을 위하는가, 침략적인 외세를 위하는가. 이것은 앞으로도 남조선에서 정의와 불의,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척도로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용철



초불의 힘으로 사회적 변혁을 이룩할것을 호소

얼마전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부패한 《정권》을 뒤집어엎은 초불의 힘으로 사회적 변혁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단체는 새 《정부》의 첫째 과제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짜드》배치철폐,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 백남기농민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박근혜의 부역세력, 적폐세력은 색깔론과 전쟁불안을 류포시키면서 초불혁명을 뒤집어엎으려 했다고 단체는 규탄하였다.

현 《정권》이 초불시민들과 약속한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나가는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몸도 마음도 젊어진다

— 통일거리운동센터를 찾아서 —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로 소문난 통일거리운동센터로 매일같이 많은 근로자들이 찾아와 갖가지 운동기

재들과 치료설비들을 리용하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통일거리운동센터를 찾았을 때였다. 운동센터안은 마

로 사람들이 흥성거리었다. 우리와 만난 운동센터의 한 일군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운동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 미처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들속에는 처음 찾는 손님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우리 센터를 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건강운동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밝은 햇빛이 흘러드는 유리벽을 따라 여러가지 운동기재들이 줄지어 놓여있는 건강운동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체력단련에 열중하고 있었다. 땀을 철철 흘리

며 정열적으로 체력을 단련하는 모습을 보느라니 훈련열풍으로 끓는 전문체육단의 훈련장에 온듯 싶었다.

우리와 만난 평양326전선공장의 로동자 김철수는 이곳에서 체력단련을 열심히 한 덕에 공장에서 한다하는 체육명수가 되었다고, 센터를 찾는 것이 이제는 습관으로 되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2층 건강운동실에도 들렀다. 2층에 있는 두개의 건강운동실에는 팔다리운동기재, 수평식 자전거운동기재, 달리기 운동기재 등 인체의 각 부위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기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 있었다.

이곳에서 체질에 알맞은 운동기재를 리용하여 체력을 단련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마침 여러명의 여성들이 건강회복실을 나서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건강하고 활력에 넘쳐 보였다.

3층에 있는 건강운동실에 이르니 흰하게 트인 원

형운동실의 곳곳에 3인용 운동기재를 비롯한 종합적인 건강운동기재들과 키몸무게측정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봉사원의 말에 의하면 3층 건강운동실에서 손님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보아주신 나비식가슴 근육발달운동기재를 즐겨 리용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리용에서 호평이 대단하다는 것이었다.

그런가하면 드넓은 탁구장에서는 열띤 응원속에 탁구경기가 한창이고 있었다. 전문선수들의 경기를 방불케 하는 탁구경기를 한동안 흥미진진하게 지켜본 우리는 계단을 내려 1층에 자리잡고있는 수증

초음파실로 향하였다. 현대적으로 꾸러진 수증초음파실에는 건식 및 습식한증칸과 함께 얇은 형초음파설비, 누운형초음파설비, 덕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와 만난 한영일(75살)로인은 수증초음파실에서 현대적인 초음파설비를 리용하고나니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

다며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선율을 멋지게 뽑아넘기었다.

몸도 마음도 한결 젊어지는 랑만과 회열의 샘터에서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후더웠다.

근로자들이 체력단련과 치료체육을 할수 있는 대중운동센터를 훌륭히 건설하고 좋은 기재를 많이 가져다놓는데 대하여 그토록 만족해하시며 센터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할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통일거리운동센터가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에 이바지하는 대중봉사기지로 더욱 유명해지리라 확신을 안고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김철호



-자기의 뇌에 대하여 신심을 가진다. 건강증과 관련한 근심을 버려야 한다.

-지적활동에 유리하게 공간을 꾸린다.

물건이 가득찬 방과 사무실은 사유과정에 방해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무실을 보다 조화롭고

아늑하게 꾸려야 한다. -명상에 잠기는 방법으로 정신을 맑게 한다.

뇌의 기능을 높이는 방법

사람들은 흔히 명상에 잠기면 푹 쉬는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전해져오는 이 방법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뿐 아니라 기억력도 개선시킨다.

-인쇄하지 말고 제손으로 글을 쓴다.

필기도구를 가지고 글을 쓰느라하면 손의 일정한 부위들이 안마되어 여러가지 생각이 잘 떠오른다.

이미 알고있던것을 더 잘 습득하게 된다.

-인쇄하지 말고 제손으로 글을 쓴다.

필기도구를 가지고 글을 쓰느라하면 손의 일정한 부위들이 안마되어 여러가지 생각이 잘 떠오른다.

본사기자

사화

다시 찾아온 경천사 흰대리석탑 (6)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록달의 안내를 받아 긴 행랑이며 불당들을 지나 원당결의 넓은 뜰에 이르면 리제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상상속에 그려보던 석탑이 벌써 한길 넘게 솟아있었던것이다. 세계의 3층으로 된 기단이였다. 리제현은 3층기단으로 다가섰다.

아, 정녕 우리 고려사람들의 재주가 세상에 으뜸이로다.

수레만큼 큰 하얀 바위돌들을 12각으로 모를 내어 세층으로 쌓고 매 층마다 12각지붕돌들을 얹었는데 거기에 여러가지 기이한 무늬들을 새긴것이 기법이 너무도 독특하여 신비롭기 그지없었다.

이 3층기단만으로도 탑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짐작할수 있었다.

어제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하여도 리제현은 석공들이 흰 종이장우에 그려진 13층석탑처럼 탑을 멋들어지게 깎으리라고는 확신하지 못하였었다.

종이우에 그려진 석탑을 처음 본것이 지난해 봄이었다. 리제현의 분부를 받은 록달이 열흘만에 큰 종이말이를 하나 들고 다시 삼사를 찾아왔었다.

그 종이말이속에는 리제현이 한번도 본적 없는 희한한 석탑이 그려져있었다.

이웃나라 땅을 메주밭듯 하면서도 제노라 하는 명사들도 다 만나보고 고 이름있는 고적들도 거의 다 돌아본 리제현이였지만 정녕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는 리제현에게 록달은 그림속의 석탑을 가리키며 자신있는 어조로 이렇게 말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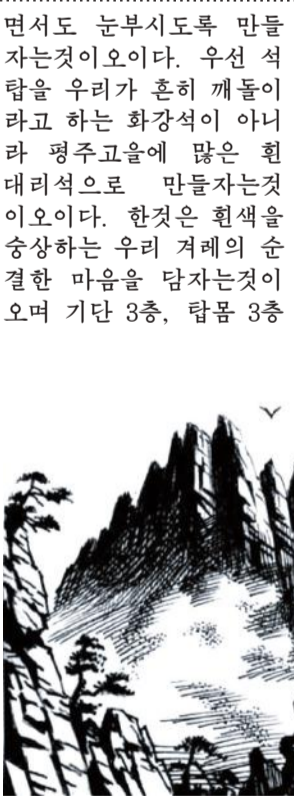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 세운 석탑들의 모양새를 보면 대체로 이러하오이다. 개경근방에 있는 불일사 5층탑, 현화사 7층탑 그리고 레천에 있는 개심사 5층탑, 묘향산 보현사의 9층탑들처럼 정방형의 평면기단위에 4각으로 된 탑몸들을 올려쌓은 석탑이 주되는 모양새오이다.

묘향산의 보현사 13층탑이나 서경의 영명사 5층탑들처럼 탑몸이 8각으로 된 것도 오오이다.

허나 이번에 세우자고 하는 경천사석탑은 아직은 세상사람들이 잘 모르는 새 모양새로서 웅장하

면서도 눈부시도록 만들자는것이오이다. 우선 석탑을 우리가 흔히 깨돌이라고 하는 화강석이 아니라 평주고골에 많은 흰대리석으로 만들자는것이오이다. 한것은 흰색을 숭상하는 우리 겨레의 순결한 마음을 담자는것이오이며 기단 3층, 탑몸 3층

본사기자



까지 6개 층을 12각으로 택한것은 조선전래의 4각 모양새와 8각모양새를 다 합쳐서 우리 고려의 불탑 건축술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음을 보여주자는 것이오이다. 그우에 세

호평받는 명제품, 명상품

신비한 조선의 장수샘물

평양의 통약산 기슭에는 통약산 샘물공장이 있다. 이 공장이 자리잡은 곳은 예로부터 향로동(로인들이 많은 마을이라는 뜻), 구로리(한 집에 로인이 9명이라는 뜻), 풍로골(늙은이가 풍년이라는 뜻), 원로리(장수자가 많다는 뜻) 등의 이름으로 불리워왔다.

장수자가 많다는 것은 물이 좋다는 의미이다. 통약산샘물은 수질성분적으로 볼 때 나무랄데가 없는 샘물이다. 이곳에서 샘솟는 물은 각종 광물질과 주요이온들을 리상적으로 함유하고있어 먹는물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치리에

도 효과가 매우 큰 장수샘물로 평가되고있다. 의과학원 환경위생연구소와 스위스국제표준기술검사소에서 분석한데 의하면 통약산샘물은 세계 여러 나라 샘물에는 없는 셀렌과 불소, 스트론튬, 메타규산과 같은 성분들이 가장 적합하게 들어있어 이발과 뼈육을 좋게 하고 소화가 잘되게 하며 암과 심장혈관 질병, 동맥경화, 골송소

버님의 구미에 맞는다니 저도 기뻐요.》라고 말하였다. 시아버지는 두번째로 밥 한술을 입에 넣고 방금 씹어느날 며느리가 밤을 다 지은 후 먼저 시아버지 한테 한사발 퍼드렸다.

시아버지는 밥을 한술 들어보더니 《오늘 밥은 참 맛있구나. 한사발 더 먹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며느리는 《아



증을 예방하고 만성위염, 대장염, 관절염, 부인병 치료에 특효가 있어 호평을 받고있다.

풍치수려한 통약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통약산 샘물공장은 2007년 6월에 조업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2011년 1월 대한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통약산샘물공장을 찾으시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여 질 좋은 샘물을 평양시민들에게 더 많이 공급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고 통약산샘물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함으로써 지난 시기에 비해 샘물생산능력을 2배로 늘인 이 공장 종업원들이다.

수천㎡의 부지면적에 물정제, 수지병생산, 물주입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춘 현대적인 공장에서는 지하 수심m 깊이에서

원천지는 얼마전에 새 며느리를 맞았다.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유모아

며느리의 립기응변

기 시작하였는데 《딱》하고 돌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아버지는 즉시 《밥에 웬 돌이냐?》하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퍼올린 샘물을 여러차례의 정밀러과와 소독공정을 거쳐 생산해내고있다.

용기소독과 샘물주입으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있고 철저한 무균상태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아담하고 정갈하게 꾸러진 공장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장수샘물이 팡팡 생산되어나오고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리용하게 0.36L유리병샘물, 18.9L수지통샘물, 5L수지통샘물, 0.35L수지병샘물, 0.55L수지병샘물들을 생산하고있다.

평양의 여러 상점과 매대들은 건강에 리롭고 맛있는 통약산샘물을 봉사받는 사람들로 매일같이 흥성이고있다.

인민을 위한 멋쟁이공장에서 쏟아져나오고있는 신비한 통약산샘물은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본사기자 흥범식

며느리는 황급히 《오늘은 누가 쌀을 일었는데요.》라고 대답하였다.

시아버지는 순가락으로 밥그릇을 두어번 들추고 코를 가져다대더니 이번에는 《밥에서 탄내가 나는구나.》라고 말하였다.

며느리는 서둘러 대답하였다. 《불은 시어머니가 땀어요.》

원천지는 며느리의 그러한 행동에 입만 다실뿐 아무말도 못하였다.

본사기자

그런데 배전을 비롯한 그 패거리들은 그림을 보는 첫 순간부터 이 석탑은 이전 고종왕시기(1238년)에 몽골군에 의해 불타버린 황룡사의 목탑과 비슷하다면서 하필이면 불타버려진 신라의 불탑모양을 택할진 된가고 까박을 붙이였다.

이때 원로대신 좌정승 김영돈이 이 탑은 신라의 형식을 본받았기 아니라 고려석탑을 보다 더 새롭게 한것이니 탄생각을 말라고 엄하게 놀리놓아서야 그들은 입을 다물어버리였다.

이리하여 석탑을 이웃 나라조정에 부탁하자던 배전이네들의 억지주장은 깨져버리고 다음해 칠월 칠석날전까지 13층석탑을 경천사에 세우기로 결정이 지어졌것이었다.

《나무아미타불, 판사님! 대시주 진녕부원군께서 왕림하셨소이다.》 주지의 웅골은 목소리에 3층기단을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리제현이 뒤로 돌아섰다.

《판사계선 벌써 나와 계시였군요.》 하고 말하며 다가오는 사람은 진녕부원군 강용이였다.

석탑을 보려 조정의 관료들만이 아니라 개경장안의 남녀노소 백성들모두가 경천사로 밀려드는 밀물마냥 끝없이 찾아와서.

그리고는 그앞에서 병약하고 어린 임금의 건강이 빨리 쾌차하여 임금이 자리에서 어서 일어나기를 열심히 빌어마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더없이 훌륭한 석탑일지라도 그것이 한갓 돌덩이여 불과한데야 어떻게 허약한 임금의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으리오.

살아있는 부처라고 자처하여 생불이라 불리우는 국사까지 경천사로 달려와 13층석탑앞에서 부처의 령험한神通력을 그처럼 기원하였지만 그 성의는 알지도 못한채 무정하게도 어린 임금을 끝내 세상을 버리고말았다.

이해가 바로 무자년인 1348년이었다.